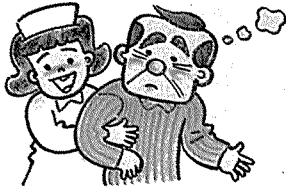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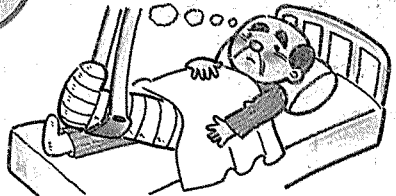
● 치매(癡呆)가 시작되는 동기 ●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치매가 시작되거나
진행된다.
이런 때에는 보호자도 충분한 주의를
해야한다.

병이 난 후



뇌졸중으로 쓰러진 후, 그대로 치매가 되는
예가 많다.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요
법을 시행해야 한다.



골절 등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
상태도 치매의 적신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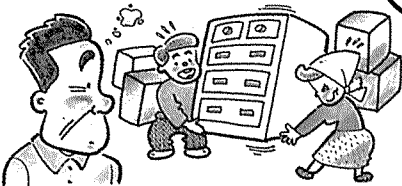


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한
후,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치매가
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



배우자를 잃은 후 치매가 시작된다.
특히, 몸을 간호하는 사람은 요 주의.

급격한 환경 변화



입원이나 이사 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할
때에는 요 주의.



가족들의 전근, 친구들과의 이별 등이 원인
이 되기도 한다.